교구에 권한, 참종권 확대…'분권형 종단' 청사진

총무원장 후보 주요 공약은?
기호 1번 경우 스님

- 교구법 제정 · 본사주지회의 격상
- 비구니 참여 '평등 승가공동체'
- 청년 전법으로 미래 기반 확충
- 수행지원 · 승려복지 강화 강조
- 관건은 공약 제도화…합의 필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경우 스님이 선운사 단기 출가학교 참가자에게 발우를 증정하고 있다.



선운사는 불교대학 개원과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운영, 군 장병 수계법회 개최 등 미래세대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35사단 장병 수계법회 모습.



전북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일굴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건립 불사가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3월 29일 열린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모습.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1번 경우 스님이 내건 8대 운영 기조와 12대 종책공약은 크게 '교구 중심의 분권형 종단 운영' '평등한 승가공동체' '수행·전법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특히 교구법 제정을 통한 교구자치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및 종무행정 참여 확대가 종단 운영체계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수행지원과 승가복지, 청년·대학생 전법, AI·디지털 종단 구축, K-불교문화와 국제포교, 대정부·대사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종단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우 스님의 종책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중앙과 교구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종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교구법 제정과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개별 사업을 넘어 종단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제도적 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38대 집행부가 중앙 중심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교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확대된 참여와 권한을 실제 종단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공약의 실행력을 가늠할 주요 관건이다.

'교구 살아야 종단 산다'

12대 종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단 도약의 초석, 교구 중심제 실현'이다. 교구법을 제정하고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종단 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교구 행정 디지털화, 교구별 발전기금 조성, 신도시 거점사찰 확대, 교구 인재양성센터 설립, 교구 포교전략 수립 지원, 교구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이 세부 과제로 담겼다.

8대 운영 기조에서도 '교구 중심의 획기적 종단운영시스템 도입'을 별도로 제시했다. 교구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교구가 종단 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우 스님은 출마선언 당시에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합의와 협력의 종단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부에 집중된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주적 교구운영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고 말사 주지 임명권 등을 교구로 이양하며 교구 재정 확충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제시했다. 교구를 단순한 지역 단위 조직이 아니라 수행·포교·전법을 주도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향이다.

교구 중심제의 또 다른 과제는 재정이다. 권한을 이양하면서 재정 기반이 따라오지 않으면 교구자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우 스님은 교구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교구의 자체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종책에 담았다.

'평등 승가공동체'…비구니 참여 확대

경우 스님 종책에서 교구 중심제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비구니 승가의 참여 확대다.

8대 운영 기조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공동체'를 별도로 제시하고, 12대 종책에서도 '수행과 전법의 주역, 당당한 비구니 승가'를 독립된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비구니 스님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종단 운영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을 확대하고 종무행정 참여를 늘리는 한편 전국비구니회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종단 내 비구니부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수행과 복지 측면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교육기관과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우 스님은 이 공약을 자신의 현장 경험과 연결한다. 선운사에서 본사 주요 소임에 비구니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면서 행정 능력과 기획력, 현장 대응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구니 승가 참여 확대는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만을 앞세운 정책이라기보다 종단이 보유한 인적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도 읽힌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구니 승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참종권 확대가 실제 종단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참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뒤따라야 한다. 종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비구니 스님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종무행정에서 어떤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행 지원 · 승가복지…'수행자 중심'

교구와 승가의 참여구조를 바꾸는 한편 수행자들이 수행과 전법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종책이다.

수행지원기금 조성과 선원시설 현대화, 전국선원수좌회 지원 확대, 간화선 국제선센터 설립 등이 수행 분야의 주요 내용이다. 선원 안거 및 수행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수행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승려복지 분야에서는 권역별 승려전문 요양수행원과 수행연금제 확대, 건강검진, 심리상담센터, 긴급구호 시스템, 복지통합플랫폼 등 비교적 폭넓은 지원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은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승가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행지원기금과 복지 확대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경우 스님은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단 재정 운영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젊은 세대를 잡아라…전법 무게 중심 이동

포교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핵심이다. 경우 스님은 출가자와 신도 감소, 신도 고령화를 한국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다. 특히 기존 신도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젊은 신도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포교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12대 종책에는 청년대학생 전법단 확대, 동국대·대불련 연계 대학생 포교, 청년선원 조성, 청년 템플스테이 확대, 청년 단기출가 활성화, MZ세대 맞춤형 불교콘텐츠 개발 등이 제시됐다.

군포교 역시 중요한 축이다. 경우 스님은 직접 군부대와 훈련소를 찾아 수계식과 공연 등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에게 불교를 접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현상을 실제 신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른바 '힙불교'가 일시적인 문화현상에 그치지 않고 불교에 대한 관심과 신행으로 이어지려면 사찰과 종단이 적극적으로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신행모델과 신도시 거점사찰, 도심 전법·명상센터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포교의 무대를 사찰 안에만 두지 않고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넓히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과 육성, 불교박람회 전국 확대, 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불교 웹툰·영상 제작, 청년 불교예술인 장학제도 등도 문화 분야에서 주요 종책으로 제시됐다.

한국불교가 가진 수행과 문화의 자산을 전통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콘텐츠화해 국내외 대중에게 전달하겠다는 접근이다. 특히 명상과 템플스테이는 이미 한국불교가 갖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종단 구축에서는 AI를 종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가 불교를 접하는 새로운 창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사회 활동 강화…종단의 공적 역할 확대

대정부·대사회 분야에서는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둘러싼 제도 개선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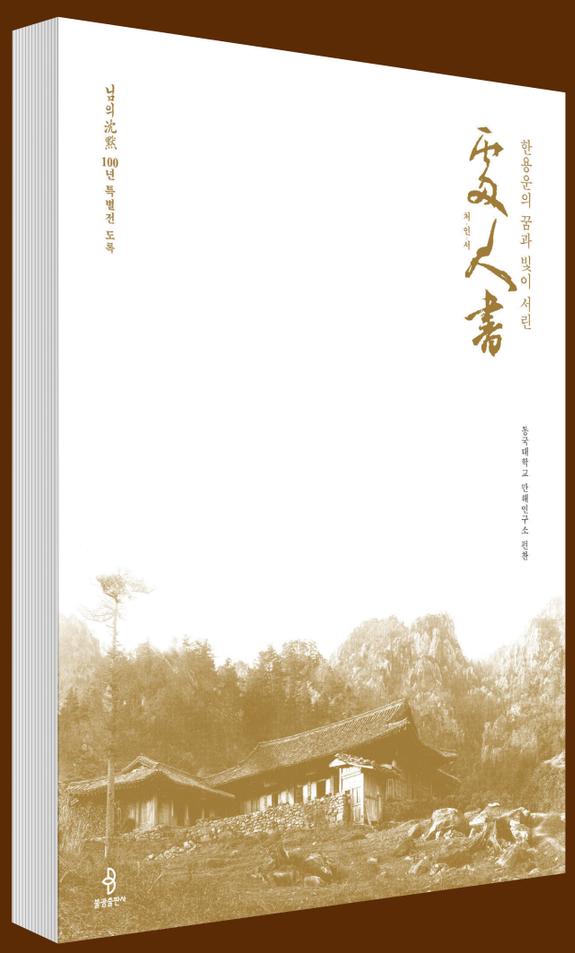
전통사찰 핵심보존지 종교용지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확대, 재난 피해 예방시설 구축, 국공유지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개별 사찰이 각 지자체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단 차원의 대정부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 사찰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중앙에서 취합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총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기후위기 대응, 다문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재난구호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우 스님의 8대 운영 기조와 12대 종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숫자보다 종단 운영방식의 변화에 있다. 교구 중심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인력·책임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역시 구체적인 제도화와 종단 구성원의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변화가 실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100년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만해(萬海)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님은 갔습니다' 뒤에 숨겨진
만해 한용운의 남다른 면모들,
친필 서간부터 유묵까지…
1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해의 모든 것'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편찬 | 222쪽(누드 제본) | 50,000원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

『님의 침묵』 간행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장소·사람·책으로 재조립한 '만해정신'의 결정판

이 책은 만해 스님이 머물렀던 장소와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
스님이 읽고 쓰고 편찬한 글을 토대로 완성한 시각적 평전이자
'한용운'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문학적 아카이브다.

"조선불교 유신의 책임이 천운이나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 유신론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는 동시에 이를 승려 형제들에게 알린다."
_『조선불교유신론』「서론」 중에서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함께 한다.
실로 자유와 평화는 전 인류의 요구라 할 것이다."
_「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